

## 기초 단계의 한국어 자모 교육(字母教育)

- 통합 교재를 중심으로 -

오광근\*

- I. 머리말
- II. '자모(字母)'와 '자모(子母)'의 용어 사용 문제
- III. '기본 모음'과 '기본 모음자(基本母音字)'의 용어 사용 문제
- IV. 음가 제시 방식의 문제점
- V. 음절표 제시 방법의 문제점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자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의 기초 단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주된 검토 대상은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간행한 통합 교재 20여 종으로 국한한다. 20여 종의 교재의 기초 단계에서 사용된 용어와 개념의 일치 여부를 고찰하여 초급 학습자의 자모 교육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개

---

\* 한국어세계화재단

념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자모 교육(字母教育)에 있어 교사나 학습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간 ‘자모(字母)’를 ‘자모(子母)’와 혼동하였기 때문에 교재의 기초 단계에 몇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모(字母)’는 문자적 개념의 용어이고 ‘자모(子母)’는 언어적 개념의 용어이다. 따라서 이 둘의 용어는 경우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모 교육(字母教育)에 있어서 ‘기본 모음’ 또는 ‘단모음’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또한 ‘기본 모음자(基本 母音字)’ 또는 ‘단모음자(單母音字)’라는 용어로 대체하여야 교사나 학습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자모 교육에서 정확한 음가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방식이 혼용되어 교사나 학습자를 혼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로마자 표기법 방식과 영어를 활용한 방식은 보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발음 기호로 적는 방식을 주로 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음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간 자모 교육에서 활용한 음절표는 발음할 수 없는 일부 음절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발음할 수 없는 음절에 어떤 표식을 달거나 기본 모음자 대신 단모음을 음절표에 넣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자모, 모음, 모음자, 기본 모음, 음절표

## I. 머리말

자모 교육(字母教育)은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습자가 한글을 모르고서는 ‘제1과’의

제목이나 본문 내용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재의 대부분은 ‘준비 학습(Introduce)’, ‘예비편(Pre Study)’, ‘한글’, ‘한글 소개’, 또는 ‘한글 익히기’ 등 기초 단계를 두어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1992년 이후에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간행한 20여 종의 통합 교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초 단계의 내용에서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한글이란 문자는 매우 낯선 것이므로 기초 단계에서 ‘한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글 모음자와 자음자의 제자 원리,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명칭, 그리고 각각의 음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한글이 음소 문자로 창제되었지만 실제로 한글을 사용할 때는 로마자처럼 풀어 쓰지 않고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국어 받침의 발음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 각 문자의 명칭, 각 문자의 음가, 문자들의 운용 원리 등은 한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기초 단계에 편성되어 있어서인지 소홀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다. 기초 단계의 내용 서술에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교재에 대한 연구물에서조차 연구의 중점을 본문의 내용에 국한할 뿐 기초 단계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기초 단계에서 본격적인 한국어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익혀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 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sup>1)</sup>

1) ‘기초 단계’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기초 단계’의 연구 필요성, ‘기초 단계’의 교재 구성 등에 대해서는 박혜경(2008:315-330)을 참조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자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의 기초 단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주된 검토 대상은 대학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간행한 통합 교재 20여 종으로 국한한다. 20여 종의 교재의 기초 단계에서 사용된 용어와 개념의 일치 여부를 고찰하여 초급 학습자의 자모 교육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 II. ‘자모(字母)’와 ‘자모(子母)’의 용어 사용 문제

교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자모(字母)’와 ‘자모(子母)’를 철저히 가려 쓰지 않고 오히려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자모(字母)를 ‘자음(子音)’과 ‘모음(母音)’의 줄어든 말, 즉 ‘자모(字母)’를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모(子母)’로 오해하기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듯하다. 실제로 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으면 대개 24개라고 답한다. 그 24개 자모(字母) 중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라 한다. 그리고 14개의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ㆁ, ㆁ’이라고 답한다. 이리 한 답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글 맞춤법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

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야)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그런데 표준어규정의 표준발음법 제2장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표준 발음법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ㅌ ㅋ ㅍ ㅎ

[표준 발음법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자모(字母)’와 ‘자음과 모음’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할 경우 위의 한글 맞춤법 제4항과 표준 발음법 제2~3항은 서로 충돌하는 규정처럼 보인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자모(字母)’가 스물넉 자라 하였고,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각각 19개, 21개(합계 40개)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규정 제4항 즉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모(字母)’는 글자 또는 문자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의 규정은 글자나 문자에 대한 것이 아닌 음운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상기 두 규정은 동일한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문 규정에서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총 수는 40개(자음 19개+모음 21개)이고 한글 자모는 24자(자음 14자+모음 10자)라 한 것이지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수가 총 24개라 한 것은 아니다. 위의 규정을 통해서 보면 ‘자모(字母)’는 문자 개념이다. 따라서 자모(字母)는 자음자(子音字)와 모음자(母音字)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2)</sup>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총 합인 40개에서 자모의 합 24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 제4항의 [붙임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붙임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쌍기역), ㄲ(쌍디귤),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ㅈ(애), ㅊ(애), ㅋ(예), ㆁ(예), ㅊ(와), ㅌ(왜)  
 ㄴ(외), ㄷ(위), ㅊ(웨), ㄱ(위), ㄴ(의)

즉 ‘ㄱ, ㄲ, ㅃ, ㅆ, ㅉ’과 ‘ㅈ, ㅊ, ㅋ, ㆁ, ㅊ, ㅌ, ㄴ’는 두 개 이상의 자모가 어울려진, 다시 말하면 두 개 이상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문자)인 것이다. 따라서 상기 [붙임1]의 예에서 ‘ㄱ’은 ‘ㄱ’이란 ‘문자’를 두 개 합친 것이지 ‘ㄱ’의 ‘음(音)’이 두 번 합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ㅈ’나 ‘ㅊ’ 등도 ‘ㅈ’와 ‘ㅈ’가 ‘ㅈ’라는 문자와 합쳐진 것이지 ‘ㅈ’와 ‘ㅈ’가 합쳐진 소리가 아닌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모(字母)’는 문자적 개념이며 ‘자음과 모음’은 언어적 개념이므로 이 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모 교육을 목표로 한글을 소개하는 것이라면 ‘자음’과 ‘모음’이란 용어보다는 ‘자음자(子音字)’와 ‘모음자(母音字)’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2)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자모(字母)’에 대해 “한 개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서 적을 수 있는 낱낱의 글자. 자음 자모와 모음 자모, 쌍자모와 복자모 따위가 있다.”로 뜻풀이하고 있다.

### Ⅲ. ‘기본 모음’과 ‘기본 모음자(基本母音字)’의 용어 사용 문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음자(子音字)’와 ‘모음자(母音字)’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자음과 자음자(子音字)를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모음과 모음자(母音字)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자음과 자음자 그리고 모음과 모음자가 일 대 일의 대응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모(字母)’와 ‘자모(子母)’를 혼동하면 모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모음 21개 중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ㅐ, ㅒ, ㅖ, ㅘ, ㅙ’ 등보다 앞서 제시하면서 이들 10개의 모음 부류를 ‘단모음(Simple vowels)’이나 ‘기본 모음(Basic vowels)’ 등의 용어로 부르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모음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음들을 ‘이중모음(Combined vowels)’, ‘그 밖의 모음(Complicated vowels)’ 또는 ‘기타 모음’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되는 예를 한국어 교재에서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사례 1]

○ 기본 모음(Basic Vowels)

글자모양(letter shape)	발음(pronunciation)
ㅏ	a
ㅑ	ya
ㅓ	eo
(중략)	(중략)
ㅡ	eu
ㅣ	i

3) 한글의 독특한 필순 때문에 표의 마지막 부분에 ‘쓰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자모의 필순은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므로 표를 제시할 때 생략하였다.

[사례 1-1]

○ 그 밖의 모음(Complicated Vowels)

글자모양(letter shape)	발음(pronunciation)
ㅐ	ae
ㅑ	yae
ㅓ	e
(중략)	(중략)
ㅜ	wi
ㅠ	ui

[사례 2]

(1) 기본 모음

자형	음가	이름
ㅏ	a	아
ㅑ	ja	야
ㅓ	ə	어
(중략)	(중략)	(중략)
ㅡ	i	으
ㅣ	i	이

[사례 3]

단모음(Single vowels)

모음	발음	단어	
ㅏ	/a/ as in f <u>a</u> ther	아이	child
ㅑ	/ja/ as in <u>y</u> ard	이야기	talk
ㅓ	/ə/ as in <u>a</u> cademy	어머니	mother
(중략)	(중략)	(중략)	(중략)
ㅡ	/i/	게으른	lazy
ㅣ	/i/ as in <u>f</u> eed	이모	aunt



[사례 3-1]

이중모음(Combined vowels)

모음	발음	단어	
ㅞ	/æ/	새	bird
ㅟ	/jæ/	얘기	talk
ㅠ	/e/	게	crab
(중략)	(중략)	(중략)	(중략)
ㅢ	/we/	웨이터	waiter
ㅣ	/ii/	의사	doctor

[사례 4]

Vowels

The following table gives the names and sounds of the 10 basic vowels.

Vowel	Name	Phonetic value
ㅏ	아	[a]
ㅑ	야	[ja]
ㅓ	어	[ʌ]
(중략)	(중략)	(중략)
ㅜ	우	[u]
ㅣ	이	[i]

[사례 5]

2. 모음

한글의 기본 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0자가 있다. (이하 생략)

글자	읽기	이름
ㅏ	a	ㅏ
ㅑ	ya	ㅑ
ㅓ	eo	ㅓ
(중략)	(중략)	(중략)
ㅜ	eu	ㅜ
ㅣ	i	ㅣ

위에 제시한 것은 ‘기본 모음’, ‘단모음’, ‘basic vowels’, ‘이중모음’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들이다. 일반적으로 기본 모음(basic vowel)은 음성학적 개념이다. 음성학에서는 ‘기본 모음’을 ‘Cardinal vowels’의 대역어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 모음’은 ‘임의적 참조 정점(參照定點)’<sup>4)</sup>으로서 母音 사각도에서 중요한 참조 지점의 역할을 하는 소리들이다.<sup>5)</sup> Daniel Jones의 경우는 ‘기본 모음’(Cardinal vowels)를 8개로 제한한 바 있는데 이 8개의 모음을 발음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 1번-i	8번-u
2번-e	7번-o
3번-ε	6번-ɔ
4번-a	5번-ɒ

이 ‘기본 모음’(Cardinal vowels)에 대립되는 개념은 ‘(제)2차 기본 모음’(Secondary Cardinal vowels)이다. 이 ‘2차 기본 모음’은 ‘기본 모음’(Cardinal vowels)과 원순적 대립 관계를 가지는 소리들이다. 따라서 음성학에서 말하는 ‘기본 모음’(Cardinal vowels)이나 ‘(제)2차 기본모음’(Secondary Cardinal vowels)들은 모두 단모음에 해당된다.

‘단모음(monophthong)’은 ‘이중모음(diphthong)’과 대립되는 말이다. 단모음은 이중모음과 달리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허용 외, 2006:83). 그런데 이 단모음, ‘monophthongs’

4) “the cardinal vowels are arbitrary reference points”(Peter Ladefoged, 1982:199)

5) 허용 외(2006:88-97)에서는 ‘기본 모음’을 모든 모음의 기본이 되는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 모음’은 자연 언어 중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모음인데 대체로 3모음 체계에서는 /a, i, u/, 5모음 체계에서는 3모음 체계에 /e, o/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논의에 의하면 한국어에서의 대표적 기본 모음은 /i, ɪ, ʌ/이다.

에 대해 ‘simple vowels’(오정란, 1993:11)나 ‘basic vowels’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표준 발음법 제4항에서는 한국어의 단모음을 10개로 규정하고 있다.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ㅛ,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자모를 교육할 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다른 모음들에 앞서 제시하는 것은 자모 교육 차원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sup>6)</sup> 문자의 창제 과정이 잘 기술된 ‘훈민정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성(中聲)의 제자 원리는 상형(象形)이다. 천지인(天地人)을 본떠<sup>7)</sup> 기본 석 자(·, ㅡ, ㅣ)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즉 ‘·’와 ‘ㅣ’ 그리고 ‘·’와 ‘ㅡ’를 결합하여 ‘ㅏ, ㅑ, ㅓ, ㅕ’와 ‘ㅗ, ㅛ, ㅜ, ㅠ’ 등을 각각 만들었다.<sup>8)</sup> 한편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음자는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등이 있다. 이 중 ‘ㅘ’와 ‘ㅙ’는 ‘ㅓ’와 ‘ㅑ’ 그리고 ‘ㅜ’와 ‘ㅛ’의 ‘二字合用’으로 만들었고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는 ‘一字中聲之與 ㅣ 相合’으로, ‘ㅘ’와 ‘ㅙ’는 ‘二字中聲之與 ㅣ 相合’<sup>9)</sup>으로 만들었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자음에 대해서도 ‘ㄱ, ㄷ, ㅃ, ㅆ, ㅉ’에 앞서 ‘ㄴ, ㄹ,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를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한다.

7) “... (중략)... 形之圓 象乎天也, ㅡ ... (중략)... 形之平 象乎地也, ㅣ ... (중략)... 形之立 象乎人也.” <훈민정음 제자해>

8) “ㅏ... (중략)... 其形則 · 與 ㅡ 合而成 ... (중략)... ㅓ... (중략)... 其形則 ㅣ 與 · 合而成 ...” <훈민정음 제자해>

9) 훈민정음 제자해에 나타나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 8자가 ‘ㅡ’나 ‘ㅣ’에 ‘·’가 결합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성해에 나타나는 현대국어의 10자는 ‘ㅘ’와 ‘ㅙ’를 제외하면 기본모음자에 ‘ㅣ’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ㅏ+ㅣ→ㅛ, ㅑ+ㅣ→ㅕ, ㅓ+ㅣ→ㅜ, ㅕ+ㅣ→ㅠ, ㅡ+ㅣ→ㅡ, ㅡ+ㅣ→ㅣ,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단계에서 ‘한글’에 대해 설명할 때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와 그렇지 않은 문자를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들이 우리 문자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10개의 모음 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기본 모음이나 단모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ㅑ, ㅕ, ㅛ, ㅠ’는 단모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본 모음에도 속할 수 없는 모음들이다. 이들에 대해 ‘기본’이나 ‘단순’이란 용어가 붙어야 한다면 ‘ㅕ, ㅑ, ㅛ, ㅠ’가 소리가 아닌 문자일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자모 교육에 있어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들에 대한 명칭은 ‘기본 모음’이나 ‘단모음’이 아닌 ‘기본 모음자’나 ‘단모음자’로 명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ㅑ, ㅕ, ㅛ, ㅠ’ 등을 일반적으로 ‘기본 모음’이나 ‘단모음’으로 분류하여 명명하게 되면 이를 가르치는 교사나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궁극적인 학습 목표는 문자가 아니라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한국어 초급의 기초 단계에서 학습자가 우리 고유 문자를 배워서 언어를 배우는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 시기에 문자만을 학습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sup>10)</sup> 이 단계에서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함께 익히게 해야 한다. 모음의 경우 자모 교육을 위해 ‘기본 모음자’를 먼저 가르칠 때 이와 관련된 10개의 소리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자음자나 모음자 옆에 음가를 표시를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ㅏ+ㅣ→ㅑ, ㅓ+ㅣ→ㅕ, ㅗ+ㅣ→ㅛ, ㅜ+ㅣ→ㅠ

10) 자모 교육에 있어서 발음 교육의 관련성은 조현용(2005:45-46) 참조.

그런데 기본 모음자를 교육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모 교육을 위해 기본 모음자를 가르치면서 발음 교육이 좀 더 복잡해 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본 모음자 10개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기본 모음자 10개를 초기 단계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모음에 대한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모음 중 일부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사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된다. 더욱이 기본 모음자 10개에는 이중모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w계 반모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자모 교육의 차원에서 ‘ㅏ, ㅑ, ㅓ, ㅕ’와 관련지어 ‘ㅗ, ㅛ, ㅜ, ㅠ’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본 모음자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 모음의 일부만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기초 단계의 학습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sup>11)</sup>

#### IV. 음가 제시 방식의 문제점

언어 학습의 기초 단계에서 목표 언어의 음운을 학습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한국어 초급 교재 대부분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에 대하여 음가를 기초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글은 음소문자이다. 문자 하나하나가 어떤 음운인지를 문자 그 자체로서 보여준다. 국어사전의 발음 표시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한글이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 음운에 대응하는 문자를 익히는 것은 쉽다.

11) 기초 단계에서 기본 모음자와 단모음 중 어느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에게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그렇지만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문자와 더불어 목표 언어의 음운을 학습해야 한다. 자모 교육에서 음가를 제시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가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먼저 발음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따라하는 경우라면 굳이 자음이나 모음의 음가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현장에서 발음을 하더라도 판서해야 하는 경우라면 또는 판서를 하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학습한 발음을 잊어버리기 않기 위해 기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음가를 나타낼 표기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급 이전의 단계에서 발음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발음을 스스로 학습하게 될 때에 교사나 학습자는 음가 표시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한국어 교재에서 자모 교육 차원이든 발음 교육 차원이든 각 글자에 대한 음가를 제시한다면 교사나 학습자 모두는 교재에서 사용한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어 교재의 기초 단계에서 자모에 대한 발음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음가 제시 방식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검토 대상을 일부 모음자에 국한하기로 한다.

최근 간행된 통합 교재에서 음가를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방식은 영어의 단어를 이용하여 음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 6]

- 어(ㅓ) sounds like "u"[ə] in sun.<sup>12)</sup>
- ㅓ /ə/ as in academy
- ㅓ Similar English Sound cut

12) 'sun'의 발음은 [sʌn]이다.

둘째 방식은 발음 기호를 이용하여 음가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이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교재마다 발음 기호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ㅣ’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발음 기호가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한 가지만 제시된 ‘ㅏ’나 ‘ㅑ’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sup>13)</sup>

[사례 7]

	ㅣ	ㅏ	ㅑ	ㅡ
가 교재	ə	æ	we	i
나 교재	ɔ	æ	wɛ	i
다 교재	ʌ	ɛ	Ø/we	u

셋째 방식은 로마자 표기법 방식으로 음가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사례 8]

ㅣ[eo] / ㅏ[yeo] / ㅑ[eu] / ㅡ[ui]

첫째 방식([사례 6])과 둘째 방식([사례 7])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사례 6]의 경우는 세계 공용어라 할 수 있는 영어를 통하여 발음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영어에 익숙한 학습자가 영어를 통해 한국어 발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동일한 음운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를 통해 한국어 발음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ㅡ/는 영어의 음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ㅡ/의 음가를 제시하려면 다음의 [사례 6-1]처럼 제시

13) 한국어 21개 모음에 대하여 발음 기호로 제시한 10종의 한국어 교재가 모두 동일한 발음 기호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사례 6-1]

으(으) sounds like "e"[i] in taken.

— /i/

— Similar English Sound (put).

[사례 6-1]은 음운 체계가 상이한 언어를 통해서 음가를 설명할 때 생기는 어려운 점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방식([사례 7])은 발음 기호로 음가를 제시하는 것이어서 발음 기호에 익숙한 사람은 그 소리를 쉽게 발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학습자가 발음 기호를 모르는 경우라면 학습자들에게 발음 기호 사용법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이 교사에게 더해진다. 또한 학습자는 발음 기호에 대한 별도의 지식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사례 7]에 잘 드러나듯이 교재에 따라 발음 기호가 다르게 제시될 경우 학습자는 다른 방식에 비해 더욱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마자 표기법 방식으로 음가를 제시하는 [사례 8]의 방식은 발음 기호를 제시하는 방식보다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교재마다 통일되지 않은 기호로 음가를 제시하는 발음 기호 방식에 비해 통일된 방식으로 음가를 동일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마자 표기법 방식은 유용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 방식대로 음가를 기술할 경우에도 한국어 교사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례 8]과 같이 발음을 제시하게 되면 한국어 ‘ㄱ’에 대한 음가를 [eo]로 제시한 것이므로 학습자들은 ‘ㄱ’을 [에오]로 발음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어 자모 ‘ㅋ’는 음가가 [yeo]이므로 [예오]로 발음해야 한다.

다음의 예는 모음자에 대한 음가를 로마자 표기법 방식대로 적



고 비슷한 소리를 제시한 경우이다.

[사례 8-1]

- ㅏ [eo] as in awe.
- ㅑ [yeo] as in yawn.
- ㅡ [eu] as in taken.

위의 예는 영어 ‘awe’를 [ɔ:]로 발음하는 것처럼 한국어의 ‘ㅏ’를 [에오]로 발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곧 ‘awe’의 발음 [ɔ:]는 ‘ㅏ’의 [eo]와 같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yawn’은 [jɔ:n]으로 발음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jɔ]와 ‘ㅑ’의 [yeo]는 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발음으로는 [ɔ:]와 [eo]가 같을 수 없고, [jɔ]와 [yeo]가 같을 수 없다.

로마자 표기법의 취지는 ‘한글’이란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김치, 태권도’ 또는 지명, 인명 등 우리 고유 명사를 세계적으로 친숙한 문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로마자 표기를 통해 한국어의 음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거북선’에 해당하는 로마자 ‘Geobukseon’의 발음은 여전히 [거북썸]이지 [geobukseon]이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어 교재에서 음가를 제시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 가지의 방식 모두에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의 새로운 방식을 음가 제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영어를 활용한 방식과 로마자 표기법 방식보다는 발음 기호를 활용한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영어를 활용한 음가 제시 방식은 영어에 없는 한국어 음운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로마자 표기법을 활용한 방식은 로마자 표기법 취지 자체가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음가 제시 방식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교재마다 다르게 제시된 발음 기호에 대해 면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한국어 자모에 대하여 발음 기호를 정하고 그것들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V. 음절표 제시 방법의 문제점

자모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 중 하나는 음절과 관련된 내용이다. 대부분의 한국어 통합 교재의 기초 단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재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보여주는 음절표<sup>14)</sup>를 제시하거나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글자를 써 보도록 하는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19종의 한국어 통합 교재 중 이런 음절 구성과 관련된 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종(26.3%)에 불과하고 나머지 14종(73%)은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음절 구성과 관련된 표를 제시하고 있다.

음절표는 대체로 자음을 y축 즉 세로로 나열하고 모음을 x축 즉 가로로 나열한다.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도 풀어쓰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모아쓰기 방식을 한다. 이 때문에 자음이 음절 초에 놓일 때, 또는 자음 없이 모음이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할 때에, 모음자의 왼쪽 또는 모음자의 위쪽에 자음자나 아무런 음가가 없는 ‘ㅇ’(이응)이란 문자가 항상 놓이므로 음절표의 이런 배열 방식은 타당해 보인다.

자음자를 제시할 경우 ‘ㄱ’에서 ‘ㅎ’까지 14개를 제시하는 것이

1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음절표이다. 음절표는 전통적으로는 반절표(半切表)라고 불려왔던 것인데(배주채, 2003:85) 19종의 교재 중 ‘반절표’란 용어를 사용한 교재도 보인다.

일반적이다. 그리고 ‘ㄱ, ㄷ, ㅂ, ㅅ, ㅈ’ 등 복자음(또는 경음)자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재는 자음자를 부분부분 제시하기도 한다.

모음자는 기본 모음자를 제시하는 경우가 주류<sup>15)</sup>를 이루는데 그 표는 다음과 같다.

[사례 9]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 중략 ...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챤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카	카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 하략 ...										

[사례 9]를 대상으로 이 표가 내포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음절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이 음절을 이룰 때 어떤 형태의 자형이 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표가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면 ‘갸’의 경우 자음 ‘ㄱ’과 모음 ‘ㅏ’가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되면 [가]로 발음하면서

15) 어떤 교재는 이 기본 모음자에 ‘ㅑ’와 ‘ㅕ’를 덧붙였다. 그리고 어떤 교재는 ‘기본 모음자’를 제시하지 않고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ㅑ, ㅕ, ㅓ, ㅕ’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교재는 아예 21개의 모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두 열을 제시하고 (가)열과 (나)열을 번갈아 가며 발음하라고 하면 음성학적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가)열과 (나)열을 똑같이 발음하게 된다.

(가)	(나)
자	차
저	처
조	초
주	추

결론적으로 [사례 9]의 음절표에 제시된 ‘자, 저, 조, 주’와 ‘차, 처, 초, 추’는 한국 사람으로서 구별하기 힘든 발음이고 표준 발음법 상 구별해서도 안 되는 발음이다. ‘차, 처, 초, 추’와 ‘차, 처, 초, 추’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례 9]와 같은 음절표를 가르치는 것은 교사나 학습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므로 한국어 학습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조현용, 2005:44)

한국어 모음 21개를 모두 음절표에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ㄱ’의 발음 교육에 문제가 있다. 앞서 제시한 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 3’의 내용을 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은 [ ]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ㄱ, ㄴ, ㄷ, ㄹ, ... ㅎ’ 등은 ‘의’만 제외하면 모두 [기, 니, 디, 리, ... 의, ... 히]로 발음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ㄱ’과 ‘기’가 표면적으로 문자만 다를 뿐 그 소리는 같아서 ‘ㄱ, ㄴ, ㄷ, ㄹ...’ 등을 가르치기란 쉽지 않다.

음절표를 통해 자음자와 모음자를 많이 제시하면 할수록 모든 음절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음의 경우 기본 모음자 10개를 제시하게 되면 아예 발음되지 않는 음절, 예를 들면 ‘쵸, 추, 쵸, 쵸’까지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문자 상 결합이 가능해서 한국어

의 문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그 음절 표기가 실제 음절과 소리가 같지 않은 경우까지 제시하게 된다.('가져'의 '저'[저]나 '다쳐'의 '쳐'[처]의 경우) 따라서 이들을 음절표에 제시할 경우 한국어 교사들은 특별히 유의해야만 한다. 이들 음절에 대해서는 해당 음절에 어떤 표시를 해줌으로써 한국어 교사나 학습자가 혼란스럽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음자 21개를 제시할 경우에서 살펴본 'ㄴ'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길의 폭' 같은 구(句)에서 '길의'는 [기리]로 발음이 가능하고 '각(角)의 종류' 같은 구에서 '각의'는 [가귀]의 발음이 가능하다. 즉 선행하는 음절말 자음을 'ㄴ'이 물려받을 경우는 [-] 발음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본래부터 자음을 갖는 경우, 앞선에 '닐리리, 희망, 무늬'의 '닐[닐], 희[히], 너[니]'처럼, [-] 발음은 불가능한 것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ㄴ'에도 어떤 표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사례 10]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ㄱ	가	거	고	구	개	케	그	기	귀	괴		
ㄴ	나	너	노	누	내	네	느	니	뉘	뇌		
ㅅ	사	서	소	수	새	세	스	시	쉬	쇠		
... 중략 ...												
ㅈ	자	저	조	주	재	제	즈	지	쥐	죄		
ㅊ	차	처	초	추	채	체	츠	치	취	최		
ㅋ	카	커	코	쿠	캐	케	크	키	퀴	괴		
ㅌ	타	터	토	투	태	테	트	티	튀	퇴		
ㅍ	파	퍼	포	푸	패	페	프	피	퓌	피		
ㅎ	하	허	호	후	해	헤	흐	히	휘	회		

음절표를 제시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 방식대로 기본 모음자

를 제시하지 않고 위의 [사례10]의 경우처럼 단모음만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위 음절표는 모든 음절이 실제 한국어 어휘 속에서 표기될 수도 있고 발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모음자를 제시하는 경우보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 VI.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자모 교육(字母教育)에 있어 교사나 학습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간 ‘자모(字母)’를 ‘자모(子母)’와 혼동하였기 때문에 교재의 기초 단계에 몇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모(字母)’는 문자적 개념의 용어이고 ‘자모(子母)’는 언어적 개념의 용어이다. 따라서 이 둘의 용어는 경우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모 교육에 있어서 ‘기본 모음’ 또는 ‘단모음’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ㄱ, ㅋ, ㆁ, ㆁ, ㄷ, ㅌ, ㅡ, ㅣ’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또한 ‘기본 모음자(基本母音字)’ 또는 ‘단모음자(單母音字)’라는 용어로 대체하여야 교사나 학습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자모 교육에서 정확한 음가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방식이 혼용되어 교사나 학습자를 혼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로마자 표기법 방식과 영어를 활용한 방식은 보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발음 기호로 적는 방식을 위주로 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음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간 자모 교육에서 활용한 음절표는 발음할 수 없는 일

부 음절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떼면 발음할 수 없는 음절에 어떤 표식을 달거나 기본 모음자 대신 단모음을 음절표에 넣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알려서 한국어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한국어 전용 문자인 한글을 우선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sup>17)</sup> 그렇지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기초 단계에서 초급 학습자에게 주어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모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대개 문자와 소리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므로 문자와 소리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동일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교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한국어 교재의 기초 단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전반을 다루지 못하고 자모 교육에 국한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확한 발음을 제시하는 방안이나 자음과 모음의 바람직한 교육 순서를 제시하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후고를 통해 계속하기로 한다.

17)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는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한국어 교사들은 ‘한글’을 알고 있는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재단에 보고한 바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1』,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pp.13-17.
-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 『재미있게 배우는 한국어1』, 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pp.10-15.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1』, 교보문고, 2008, pp.10-15.
-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초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2, pp.15-20.
- 김혜영, 『한국어 1』,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6, pp.5-14.
-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함께 배워요 한국어 1』,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pp.13-19.
- 부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친절한 한국어 1』, 도서출판 인터비전, 2007, pp.1-24.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쉽게 배우는 한국어-초급 읽기 쓰기』, Language PLUS, 2007, pp.10-21.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1』, 문진미디어, 2002, pp.19-38.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Active Korean 1』, 문진미디어, 2006, pp.16-31.
- 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국어 1』, 생각하는 백성, 2002, pp.10-21.
- 성균어학원, 『배우기 쉬운 한국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4, pp.18-25.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한국어1』,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pp.3-10.
- 이채연·김라연·김창구·조정순·신은경, 『유학생을 위한 톡톡 튀는 한국어』, 도서출판 박이정, 2006, pp.9-28.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p.11-18.
- 한국어교육연구소,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 도서출판 하우, 2007, pp.5-35.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 한국

-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pp.10-18.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개정판 한국어』,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5, pp.9-14.  
한서대학교 어학연수원, 『한국어1』, 한서대학교 출판부, 2007, pp.9-18.

## 2. 논문

- 박혜경, 「한국어 교재의 기초단계 구성」, 『한국어 교재 연구』(안영수 편), 도서출판 하우, 2008, pp.315-330.  
신경철, 「한글의 언어 구조적 교육 방법」, 『이중언어학』12, 이중언어학회, 1995, pp.255-272.  
신경철, 「훈민정음의 모음자와 모음체계 신고」,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8, pp.149-162.

## 3. 단행본

- 강신항, 『수정 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pp.123-195.  
국어연구소, 『표준어 규정 해설(표준어 모음 제1집)』, 국어연구소, 1988, pp.45-75.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2003, pp.27-90.  
오정란, 『현대 국어음운론』, 형설출판사, 1993, pp.3-68.  
이익섭 외,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1997, pp.27-102.  
이진호,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2005, pp.25-114.  
이호영,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 pp.23-131.  
조현용, 『한국어교육의 실제』, 유씨엘, 2005, pp.31-68.  
한재영 외, 『한국어 발음 교육』, HOLLYM, 2003. 25-114면.  
허용·김선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2006, pp.35-166.  
Peter Ladefoged, A Course in Phonetics(second edition). HBJ. 1982.(황귀룡 옮김, 『音聲學入門』, 한신문화사, 1986, pp.287-310.

Teaching Korean Alphabets for Basic Level Learners of KFL  
- Focusing on 'Integrated Textbooks' -

Oh, Kwang-Keun

This paper discusses the basic level Korean textbooks focusing on the teaching of Korean letters. The integrated textbooks published by language education institutes of 20 universities are examined. Through discussion, the terms and the concepts of the term are surveyed and solutions for some problems are proposed.

The main poi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fusion can be dissolved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the term. For example, the term 字母(alphabets) and 子母(consonants and vowels) must be understood in the view of orthography and linguistics respectively. Second, it is better to show the phonetic value using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s(IPA).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llable chart. For example, the mark representing unpronounceable syllable and a monophthong can be used for more useful instruction.

Key words : alphabet, vowel, vowel letter, cardinal vowel, syllable table

오광근

소속: 한국어세계화재단 연구실장

주소: (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전화번호: 02-2669-9786, 011-706-8464

전자우편: [ohkk@glkorean.org](mailto:ohkk@glkorean.org)

이 논문은	2008년 10월 28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